

제2공항 공개토론회 개최 '초읽기' 텅 빈 한전부지... 서흥주민들 "주차장으로"

도, 성산읍반대위 제안 긍정 검토... 실무협의 착수
조만간 원 지사·반대위 만남 추진... 시기에 촉각
반대측, 논평 통해 공개토론회 이달 중 개최 요구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안한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도가 조만간 일회용 제주도지사과 반대대책위측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어 만남 시기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원 지사에게 공개토론회 개최와 프랑스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 초청 ADPI 보고서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반대책위는 당시 공문에서 "제주도지사가 정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모르고 국토부의 입장만 두둔해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믿고 있다"며 "국토부의 주장과 지역대책위 주민들의 주장을 공개적인 토론회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른 ADPI 보고서 문제에 대해 정밀하게 되짚어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만든 ADPI사를 직접 초청해 그동안 논란이 된 ADPI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 논란이 된 부분들을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최근 반대대책위측과 만남을 갖고 공개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반대책위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1차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서 "공개토론회 개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원 지사와 반대대책위

과의 만남 역시 "열린 자세로 임해온 부분"이라며 공개토론회 전 이뤄질 것으로 봤다. 정확한 시기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8월 초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와 원지사의 여름휴가가 예정돼 있어 빠르면 이달 중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개토론회 일정 등은 원 지사와 반대대책위측과의 만남 후야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대책위가 제안한 ADPI 초청 ADPI 보고서 검증 제안은 논의되지 않아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다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제2공항 공개토론회 수용을 환영한다"며 이달 중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대책위가 공개토론회와 함께 제안했던 ADPI사 초청 보고서 검증도 수용할 것으로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발송한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이번 주 중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2년여 전부터 시민에
무료로 개방해 왔지만
한전, 안전사고 우려로
이달부터는 출입통제



서귀포시 서흥동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소유 부지의 미활용 공간에 대한 출입을 이달부터 통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개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서귀포시 서흥동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미활용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개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전에서 2년 여 전부터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해오던 서흥동주민센터 인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를 한전에서 이달부터 출입통제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15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 4월부터 연립주택과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3946㎡ 부지내 공터를 개방해 인근 주민들이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 부지는 한전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해 2018년까지 지형형 전기차 주차빌딩 건축 계획을 밝혔던 곳이기도 하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서귀포시는 해당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한전측에 매입의사를 밝혀왔는데, 한전은 매각하

지 않고 직접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발생 등으로 현재 주차빌딩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데 해당 부지에 대해 이달부터 한전이 안전관리 등을 위해 출입을 통제했고 이에 주택밀집지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마을회에서는 미활용 상태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공익을 위해 개방해 달라는 문서를 한전에 보내는 등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2년여간 해당 부지를 방치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이달부터 통제가 들어갔다"며 "답장 납작 담벼락 일부가 떨

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등 민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할 계획중인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만큼 임대 전까지는 한시 개방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고 2016년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017년에는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까지 했지만 막대한 매입비 부담 등으로 당장 매입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이동노동자 쉼터 '흔디쉼팡'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에 동지



15일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공간인 '흔디쉼팡'이 15일 문을 열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에도 고정된 사업장 없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공간인 '흔디쉼팡'이 1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대리기사와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82.4%가 쉼터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합한 쉼터위치에 대한 의견은 제주시청 부근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쉼터에 필요시설로는 휴게 시설이 41.1%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반영해 올 1

월부터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3층 158.78㎡ 공간을 임차해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6월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이날부터 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동노동자 흔디쉼팡 쉼터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문을 연 노동환경개선시설로, 쉼터 운

영주체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이다.

이용대상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업 종사자 및 학습지 교사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자 9개 업종 종사자에 한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절대보전지역 '늘고' 상대보전지역 '줄고'

도, 보전지역 결정·변경 고시
214.38km²... 추자면 증감 뚜렷

제주도내 절대보전지역이 8.61km² 늘고 상대보전지역이 1.24km²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일부 관리보전지역이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제외 조항임에도 지적·관리됨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193.00km²에서 201.62km²로 증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4.00km²에서 12.76km²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총면적은 214.38km²로 변경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줄어들었다. 상대보전지역이 감소한 제주시 지

역을 보면, 추자면(-3.28km²), 조천읍(-0.20km²), 회천동(-0.18km²), 노형동(-0.06km²), 연동(-0.02km²) 등이다.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한 지역은 추자면(4.11km²) 우도면(1.06km²), 한림읍(0.04km²), 봉개동(0.03km²), 아라리동(0.03km²), 이호일동(0.03km²) 등이 있다. 추자면의 경우 추자도 산봉우리 주변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상대보전지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이 같은 증감세를 보이게 됐다.

반면 서귀포시는 모든 면적이 늘었다. 절대보전지역은 2.09km², 상대보전지역은 2.07km² 각각 증가했다.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도 감소했다. 지구별로 8.65km² 줄면서 1234.15km²로 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닷가 절대보전지역 1.8km²와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상대보전지역 1km²가 신규 지정되면서 일부 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청소년 인문학 '레트로 인' 캠프 참가자 선착순 모집

제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 동안 제9회 청소년 인문학 캠프 '레트로 인(Retro In)'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사회전반에 나타난 복고문화 현상을 통해 타인과 자기의 삶을 연결지어 사고하는 인문학적 감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꾸며진다.

이번 캠프에서는 특강 '신조어 레트로의 이해'를 비롯해 '시와 운율', '몸으로 시도하는 인문학', '공자와 사랑에 빠지다', '사람이 문체다'라는 4가지 주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캠프 참가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제주시 청소년수련관(064-728-3446).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이호테우해변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제주시가 기초조서를 확립함과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 관내 해수욕장은 7개

소로 이 중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범적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해수욕장을 이용한

후 나온 쓰레기를 해수욕장에 임시로 설치된 부스로 가져오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ℓ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1/3을 채웠을 시 삼다수 1개 제공, 1/2를 채웠을 경우 비타민 음료 1개, 완전히 채웠을 때 야외용 돗자리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만달랭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투양 공평이성 질병의 방제
- 방어병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이모프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그랜드 보청기

여름시즌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샴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환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Q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뽕진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목표 접수 판매(1년생 목표 접수만 취급)
★ 모든 목표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